

앞으로 나아가라

출애굽기 14:1-31

“힘한 광야에서 승리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말 한마디가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언어가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 갇혔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말합니다.(출 14:3)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가 보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 배경이신 하나님입니다.(출 13:18a)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기에, 바로와 같이 현실만 보고 갇혔다고 판단하고 말 하면 안 됩니다.

구소련의 어느 철도국 직원이 열차의 냉동 칸 속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그만 그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냉동 칸에서 그가 발견되었을 때에, 그는 얼어 죽어 있었고, 벽에 이런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갇혀 얼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놀랐던 것은 그의 죽음이나 벽의 글 때문이 아니라 그 냉동 칸의 냉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냉동 칸 속에 갇혔던 그는 추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갇혔다고, 얼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갇혔다는 생각, 언어들은 무섭습니다. 함부로 말 하면 안 됩니다. 갇힌 것 같이 보일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너머의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셉도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요셉을 보며 혀를 찰것지만, 요셉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현재의 갇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비전과 부르심을 생각하며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 나갔습니다. 갇힌 현실이 끝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강은 흐르고 있는 것이며, 또 옥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창 41:14a) 현실과 사실은 지나가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아 2:9)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옥에 갇혀있었던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갇혔다”는 답이 아닙니다.

2. 죽겠다

한국 사람들의 언어 가운데 “죽겠다”라는 말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데 “죽겠다”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이 한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출 14:10-11)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 누워 계셨던 곳이 있습니다. (마 28:5-6) 그러나 3일 만에 부활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나갑니다. 이 죽을 것 같은 현실은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누워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을 하지만,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지만, 죽겠다라는 언어로는 우리가 이 광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겠네! 살았다!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이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죽겠다는 언어 또한 답이 아닌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3.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4) 이것은 모세의 말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답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기는 것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명사로 많이 쓰였습니다만, 행동하는 동사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에서 안주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현재 모습 그대로 대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 모습 그대로 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장차 될 수 있는 모습과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대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더 위대한 생애, 더 위대한 일을 꿈꾸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비전을 심어준다면 그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도 갈대 같았던 시몬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는 반석 같아야 한다고 하시며 그에게 “게바”, “베드로”란 이름을 미리 주었습니다.(요 1:42) 미리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그 주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앞으로 펼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있으라,”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나가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출 14:15) 광야에서 이기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기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을 둘러보며 좌절하지 말고 가야 할 목표를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힘든 십자가 앞에서 주저앉고 싶어 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인성으로는 이 잔을 옮기고 싶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서는 목표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갔고, 십자가를 넘어 영광의 길로 우리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할 때, 거북이는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속도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 앞에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지켜 주십니다.(출 14:21-22)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출 14:30)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만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면 무서운 악의 세력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 정리 되고, 앞으로 나아가면 원수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쓰러지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비록 득세 하는 것 같아도 진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 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앞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한 광야에서 승리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스스로가 갇혔다고 생각하고 죽겠다고 하는 죽음의 언어는 -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 믿음이 없는 언어, 정말로 죽고 마는 언어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그 말에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야 합니다. 성도라면 가야 합니다. 이 광야를 이기는 승리의 언어, “앞으로 나가자”입니다!

○ 나눔의 시간 ○

1. 힘한 광야에서 승리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1) 갇혔다 (2) 죽겠다 (3) 있으라 (4) 나가라
2. 우리가 현실에 갇힌 것 같이 보일 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2. 죽겠다는 언어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틀린 답은 아니나 온전한 답도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